

알코올중독자의 단주자기효능감과 알코올회복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Abstinence Self-Efficacy and Alcohol Recovery on the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of Alcoholics: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1차원고접수: 2024.07.10. 수정원고접수: 2024.08.28. 최종게재결정: 2024.09.21.

김진숙¹ · 문현주² · 김미진³

¹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²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³조선대학교 대학원 중독재활복지학과, 박사수료

Kim, Jin-Sook¹

Moon, Hyun-Ju²

Kim, Mi-Jin³

¹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Welfare, Chosun University

²Dept. of Social Welfare, Cheju Halla University

³Dept. of Addiction Rehabilitation with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자의 단주자기효능감과 알코올회복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단주모임과 A.A. (Alcoholics Anonymous) 회원,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245 사례를 수집하였고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217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들로부터 얻은 원자료는 SPSS와 AMOS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주자기효능감, 알코올회복은 자활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알코올중독자의 단주자기효능감, 알코올회복과 자활의지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매개모형이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변수 간 경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주자기효능감, 알코올회복은 회복탄력성과 자활의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고 회복탄력성은 자활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주자기효능감과 알코올회복 두 변수 모두 자활의지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고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알코올중독자의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알코올중독자, 단주자기효능감, 알코올회복, 자활의지, 회복탄력성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abstinence self-efficacy and alcohol recovery among alcoholics affect their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and to elucidate the indirect mediating role of resilience in this relationship.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October to November 2023, targeting participants from sobriety groups, A.A.(Alcoholics Anonymous) members, and patients currently hospitalized. A total of 245 responses were collected, and 217 valid responses, excluding incomplete survey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aw data obtained from these survey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PSS and AMO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bstinence self-efficacy and alcohol recovery significantly influenced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Second, the mediating model, which set resilience as a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bstinence self-efficacy, alcohol recovery, and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was confirmed as a suitable model. Specifically, abstinence self-efficacy and alcohol recovery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resilience and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and resilienc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Third, both abstinence self-efficacy and alcohol recovery had direct effects on the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and had indirect effects through resilience. Based on these findings, effective and practical intervention plans for alcoholics are suggested.

Keywords alcoholics, abstinence self-efficacy, alcohol recovery, willingness for self-sufficiency, resilience

* 이 논문은 2023년도 조선대학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to 문현주 (Moon, Hyun-Ju)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Dept. of Social Welfare, Cheju Halla University) E-mail. zooblu@chu.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알코올중독자들은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면서 강박적으로 알코올에 계속 탐닉하려는 경향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4월 기준 약 596만 명 정도가 평생 한 번 이상 알코올 사용 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생 유병률은 11.6%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 알코올중독의 또 다른 문제는 재발이다. 국내외 연구에서 알코올중독자들이 퇴원 이후 3개월 이내에 재발할 확률은 82.1%로 나타났고, 3년 정도 지나면 45%가 다시 술에 빠져드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정수, 한상익, 김광수, 1994; 최송식, 2013; Bottlender & Sayka, 2005). 술을 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알코올중독은 신체·사회·심리·정서·경제적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며, 자살 위험성과 사망률을 높이고 엄청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강준혁, 강선경, 맹성준, 2023; 권학선, 2006; Bottlender & Sayka, 2005; Haverfield & Theiss, 2015). 또한, 알코올중독 당사자와 그 가족은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다(Haverfield & Theiss, 2015).

최근 알코올중독 치료가 병원 세팅을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치료 재활서비스 체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알코올중독자의 자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장기입원 중심의 병원 프로그램은 재발률을 높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알코올중독자의 치료 재활서비스를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윤명숙, 1999). 알코올중독자의 단주를 돕고 회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사회복귀와 재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자활의지는 외부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다는 목표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결단의 표현으로 경제적·심리적 자립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송승숙, 장승옥, 2013; 임희선, 2007; 장용언, 임증철, 2015). 알코올중독자의 자활은 복지 의존을 탈피하도록 돕고 심리적 안정, 자신감 회복, 사회적 관계를 높이고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양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김영선, 2018; 임희선, 2007). 알코올중독자들은 소일거리가 없거나 자활의지가 낮을수록 다시 음주 문제에 연루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송은주, 홍수영, 김희선, 2012; 임희선, 2007), 중독자의 회복 과정에서 자활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들을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낙오되어야 할 비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활하는 힘을 갖고 있는 주체적 인간으로 간주하며(윤명숙, 1999)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음주 문제가 높을수록 심리·신체적 건강상의 문제로 자활의지가 꺾여 자활사업에서의 중도 이탈 가능성이 높다(유태균, 김정휘, 2008; 임희선, 2007). 반대로 음주 문제가 있더라도 꾸준히 자활에 참여하면 자활의지가 높아지고(김용석 등, 2015), 중독자의 자활의지가 높아지면 음주 문제 감소로 연결된다(임희선, 2007). 이처럼 자활의지는 알코올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활의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핵심은 재발률을 낮추고 단주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회복은 아주 중요하다. 최근 알코올중독은 완치보다는 회복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김선민, 오기철, 강향숙, 2013; 김혜선, 박소영, 2018). 회복은 알코올중독자의 삶에서 상실된 것에 초점을 부여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새롭게 인식한 것을 의미화함으로써 본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관점을 지향한다(김선민, 2006). 회복의 관점은 문제를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긴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 술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발현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윤명숙, 1999). 알코올중독에서 회복은 개인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을 초래하는 사건으로서 의도적이면서도 계획적인 행동

과 함께 지속적인 적응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삶의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일부 알코올중독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처럼 회복은 직선적인 형태보다는 순환론적이면서 나선구조의 형태로 되어있다(강준혁, 2016; 강항숙, 2015; 다사랑중독연구소, 2007). 즉 회복은 하나의 역동적 과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재발을 단순한 실패로 접근하지 않는다. 또한, 재발은 중독자 자신의 현재 모습을 깨닫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 알코올중독자들이 술로부터 회복되는 시간은 개인마다 다르며 양상도 차이가 있는데(김선민 등, 2013), 일상적 회복이 이루어지면 술 없이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면서 자활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알코올중독 회복과 자활의지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12단계 통합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알코올중독자들은 자활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선, 2018). 위와 같은 관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회복이 알코올중독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심리적 자원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알코올중독자들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단주에 대한 강한 결단을 내리지만 언제 또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무력감 속에서 살아간다. 알코올중독자의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단주자기효능감을 꼽고 있다(다사랑중독연구소, 2007; 조은희, 2010). 자기효능감은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개인의 신념으로 규정한다(Bandura, 1978). 자기효능감이 저하된 경우, 개인의 통제를 요하는 상황에서 중독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김성희, 주수산나, 신혜림, 2022).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노력을 지속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높은 집중도를 높이고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Heslin & Klehe, 2006). 자기효능감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Cassidy, 2015).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긍정적인 결과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Rollnick &

Heather, 1982). 또한,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숙달해야 할 일로 받아들인다(Lau, Willetts, Hood & Cross, 2015). 이를 종합해 보면, 단주자기효능감은 단주와 관련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단주를 유지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기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입원 횟수가 높더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강화하고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면 단주에 대한 희망과 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사랑중독연구소, 2007, 송은주 등, 2012; 최은정, 양정남, 박순희, 2012). 단주자기효능감이 알코올중독자들의 재발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음주문제를 갖고 있는 참여자에게 음주 문제 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단주자기효능감과 자활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례, 2021). 자기효능감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과 연결되므로 근로 능력과 인적자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코올중독자들에게 자활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알코올중독자들이 혼자 일어설 수 있다는 생각과 의지를 갖고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단주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단주자기효능감이 자활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주자기효능감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알코올중독자들은 가족지지 기반 와해, 신체적 고통, 직업 상실로 인한 심리·정서·경제적 어려움이 높은 편이며 이런 요인은 쉽게 재발로 이어진다(권학선, 2006). 삶의 각 영역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지만, 일부 중독자들은 고위험 상황에서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자원을 모색하고 술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강점 관점에서 이들에게 부과된 위험 요인보다는 어떠한 대처자원을 갖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이를 임상 현장에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Enoch, 2007; Garmezy, 1993). 회복탄력성은 ‘정신적 저항력’을 의미하는 용어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응하려는 개인의 능력과 자원으로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는 능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홍은숙, 2006). 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과 성장 욕구를 간과하고 그들의 부정적인 증상에만 집중하면 그들이 보유한 다양한 긍정적인 자원을 놓치게 된다(Palmer, 1997).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으로 알코올 문제와 우울, 불안을 낮추는 완충 기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에 따른 심리, 행동적 결과의 개인차를 설명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Prince-Embury & Saklofske, 2014). 회복탄력성이 높은 개인은 행동의 결과를 잘 처리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을 변화시키며 자신이 잘하는 것을 알고 실수로부터 배울 것을 찾으며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모색할 수 있다(De Caroli & Sagone, 2014; Hurtes & Allen, 2001). 또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신속하고 적절하게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Chen et al., 2015). 실제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중독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위험 요인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비교적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재희, 2015). 또한, 회복탄력성이 높은 중독자들은 기꺼이 자기 경험을 타인에게 쉽게 노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생성하는데 이는 치료 효과를 높여 권한 부여와 영적 경험을 얻게 하고 알코올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tzidimitriadou, 2002; Mallow, 1998). 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도전적인 자세로 역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Martin & Marsh, 2006). 따라서 알코올중독자의 단주자기효능감은 회복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자활의지는 스스로 자활 또는 자립하려는 열망과 동기를 갖는 심리적 자원으로 볼 수 있다(김승의, 2007). 가족탄력성과 자활의지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시각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이런 역량이 자활에 대한 열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희, 2021). 이를 중

합해 볼 때, 알코올중독 회복과정에서 알코올중독자들이 회복할 수 있다는 자기 신념과 확신을 갖고 다양한 위기 사건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자활의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다. 알코올중독자의 자활의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 개입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주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과 자활의지는 알코올중독의 회복과 치료 개입에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지만, 이 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중독자 개인에 대한 연구보다는 알코올중독 성인 자녀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회복탄력성 연구(홍정남, 이영호, 2009; Haverfield & Theiss, 2015; Palmer, 1997)가 대부분이다. 단주자기효능감은 A.A.(Alcoholics Anonymous) 회원대상과 단주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들과(백형의, 조수민, 김선희, 2021; 송은주 등, 2012; 최은정 등, 2012) 회복프로그램이나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의 음주 문제와 자활의지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김영선, 2018; 김용석 등, 2015; 유태균, 김경휘, 2008; 임희선, 2007). 하지만 단주자기효능감, 알코올회복과 자활의지와의 경로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점 관점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이 단주자기효능감과 알코올회복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경로를 추적하고 이들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천 현장에서 임상 개입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알코올중독자의 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들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단주자기효능감, 알코올회복, 회복탄력성, 자활의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단주자기효능감, 알코올회복과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효과를 갖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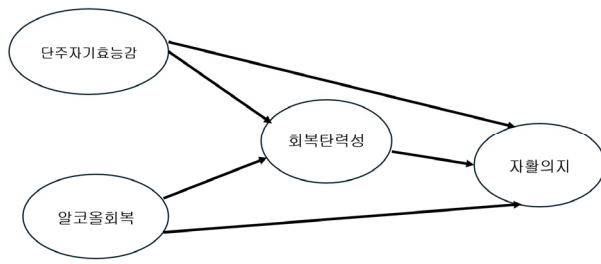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지 진행되었다.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고지하고 연구동의서를 사전에 배부했으며 연구에 동의한 자에 한해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 내용의 작성시간은 약 10분정도였다. 설문은 연구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한 후 바로 수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총 245부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무응답, 중복응답이 많은 설문을 제외한 217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A.A. 모임, 기타 단주 모임 등에 참여하는 알코올중독자와 K지역에 위치한 알코올 개방병동 입원환자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단주 기간을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이 173명(79.7%), 여성이 44명(20.3%)으로 남성이 4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은 20 ~ 30대 16명(7.4%), 40 ~ 50대 136명(62.7%), 60 ~ 70대 65명(29.9%)으로 40 ~ 50대가 가장 많았다. 단주 기간은 0 ~ 6개월 66명(30.5%), 5년 ~ 10년 40명(18.4%), 10년 ~ 20년 38명(17.5%), 2년 ~ 5년 23명(10.6%), 1년 ~ 2년 22명(10.1%), 6개월 ~ 1년 17명(7.8%), 20년 이상 11명(5.1%)으로 0 ~ 6개월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3. 측정도구

1) 단주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단주자기효능감은 Diclement, Carbonari, Montomery와 Hughes(1994)가 개발한 단주자기효능감 척도를 김성재(1996)가 번안 후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단주자기효능감은 알코올 의존환자들이 고위험 상황에서 금주를 유지할 수 있는 자신감을 평가할 수 있다. 이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정서(예: 마음속으로 깊이 화가 날 때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 사회적 압력(예: 다른 사람이 술 먹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 신체적 고통(예: 머리가 아플 때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 금단 및 갈망 경험(예: 술을 끊는 것이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 각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했으며, 높은 점수는 단주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8, 부정적 정서 신뢰도는 .94, 사회적 압력 신뢰도는 .95, 신체적 고통 신뢰도는 .95, 금단 및 갈망경험 신뢰도는 .94로 나타났다.

표 1. 일반적 특성

(N = 217)

특성	범주	n	%	특성	범주	n	%
성별	남	173	79.7	단주 기간	0 ~ 6개월	66	30.5
	여	44	20.3		6개월 ~ 1년	17	7.8
나이	20 ~ 30대	16	7.4		1년 ~ 2년	22	10.1
	40 ~ 50대	136	62.7		2년 ~ 5년	23	10.6
	60 ~ 70대	65	29.9		5년 ~ 10년	40	18.4
					10년 ~ 20년	38	17.5
					20년 이상	11	5.1

2) 알코올회복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 회복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전수미(2014)가 개발한 알코올회복척도를 활용하였다. 알코올회복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음주문제 수용(예: 술 마시도록 부추기는 상황을 피한다.) 6문항, 열망과 도전(예: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6문항, 새로운 삶(예: 알코올의존을 겪고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6문항, 삶 만족(예: 나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한다.)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를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단주에 따른 알코올회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신뢰도는 Cronbach's α .95, 음주문제 수용 신뢰도는 .85, 열망과 도전 신뢰도는 .89, 새로운 삶 신뢰도는 .89, 삶 만족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3)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주환(2011)이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지를 한은숙(2019)이 수정·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회복탄력성 척도는 총 3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1문항은 자기조절능력(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11문항은 대인관계능력(예: 분위기나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9문항은 긍정성(예: 감사해야 할 것이 많다.)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회복탄력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신뢰도는 Cronbach's α .91, 자기조절능력 신뢰도는 .81, 대인관계능력 신뢰도는 .81, 긍정성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4) 자활의지

본 연구에서는 자활의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승의 연구(2007)에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활의지는 일하는 것의 즐거움, 일에 대한 노력, 근로소득에 대한 생각 등을 확인하는 질문으로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등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코딩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을 거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Statistics 23.0 버전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이후,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VIF분석을 시행하였다. 단주자기효능감과 알코올회복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AMOS 23.0 버전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은 측정 모형 분석과 구조모형 분석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단주자기효능감, 알코올회복, 회복탄력성, 자활의지 간의 관계

표 2를 통해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대우도법을 통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가정한다. 정규분포성 확인을 위해 일변량 정규성을 첨도와 왜도를 통해 평가한다. 왜도의 절댓값이 2, 첨도의 절댓값이 7보다 큰 경우 정규성의 가정에 문제가 되지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는 왜도가 -1.14에서 .01, 첨도가 -1.08에서 1.75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는 일변량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주자기효능감, 알코올회복, 회복탄력성, 자활의지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단주자기효능감, 알코올회복, 회복탄력성, 자활의지는 서로 정적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N = 217)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단주 자기 효능감	부정적 정서	3.53	1.20	-.40	-.94
	사회적 압력	3.66	1.22	-.59	-.72
	신체적 고통	3.65	1.23	-.53	-.89
	금단 및 갈망 경험	3.57	1.26	-.43	-1.08
알코올 회복	음주문제 수용	4.18	.75	-1.02	.91
	열망과 도전	4.07	.74	-.63	.27
	새로운 삶	3.72	.82	-.43	.04
	삶 만족	3.78	.88	-.62	.32
회복 탄력성	자기조절능력	3.30	.61	-.09	.40
	대인관계능력	3.23	.55	.01	.52
	긍정성	3.78	.68	-.33	-.23
자활의지	자활의지1	3.58	.96	-.66	.48
	자활의지2	4.12	.85	-1.14	1.75
	자활의지3	3.76	.98	-.62	.07
	자활의지4	3.94	.89	-.72	.32
	자활의지5	3.92	.95	-.87	.69
	자활의지6	3.96	.93	-.93	.80
	자활의지7	3.91	.95	-.75	.20
	자활의지8	3.77	.98	-.63	.20
	자활의지9	3.84	.91	-.62	.23
	자활의지10	3.64	.97	-.48	-.10
	자활의지11	3.84	1.03	-.89	.51

표 3.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단주 자기 효능감	1. 부정적정서	1											
	2. 사회적 압력	.86***	1										
	3. 신체적 고통	.84***	.93***	1									
	4. 금단 및 갈망 경험	.88***	.91***	.92***	1								
알코올 회복	5. 음주문제수용	.19**	.16*	.19**	.17*	1							
	6. 열망과 도전	.17*	.15*	.18**	.20**	.52***	1						
	7. 새로운 삶	.19**	.12	.17*	.19**	.64***	.73***	1					
	8. 삶 만족	.25***	.17*	.21**	.25***	.50***	.67***	.76***	1				
회복 탄력성	9. 자기조절능력	.15*	.14*	.14*	.20**	.39***	.44***	.53***	.53***	1			
	10. 대인관계능력	.08	.12 ⁺	.13 ⁺	.19**	.32***	.45***	.51***	.48***	.62***	1		
	11. 긍정성	.22**	.19**	.19**	.21**	.41***	.53***	.60***	.63***	.54***	.57***	1	
12. 자활의지		.24**	.25***	.24***	.25***	.40***	.63***	.59***	.56***	.44***	.50***	.53***	1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주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정서, 사회적 압력, 신체적 고통, 금단 및 갈망경험은 알코올 회복의 하위변인인 음주문제 수용, 열망과 도전, 새로운 삶, 삶 만족과의 상관관계수가 $r = .17(p < .05) \sim r = .25(p < .001)$ 의 분포를 나타냈

다. 그 중 단주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사회적 압력과 알코올회복의 하위변인인 새로운 삶($r = .12$)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는 $r = .12(p < .1) \sim r = .22(p < .01)$ 의 분포를

나타냈다. 단주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부정적 정서와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인 대인관계능력($r = .08$)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의지와 상관관계수는 부정적 정서 $r = .24(p < .01)$, 신체적 고통 $r = .24(p < .001)$, 사회적 압력과 금단 및 갈망경험 $r = .25(p < .001)$ 로 나타났다. 알코올 회복의 하위변인인 음주문제수용, 열망과 도전, 새로운 삶, 삶 만족과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간의 상관관계수는 $r = .32(p < .001) \sim r = .63(p < .001)$ 의 분포를 나타냈다. 자활의지와 상관관계수는 음주문제수용 $r = .40(p < .001)$, 열망과 도전 $r = .63(p < .001)$, 새로운 삶 $r = .59(p < .001)$, 삶 만족 $r = .56(p < .001)$ 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능력과 자활의지는 $r = .44(p < .001)$, 대인관계능력

과 자활의지는 $r = .50(p < .001)$, 긍정성과 자활의지는 $r = .53(p < .001)$ 으로 나타났다. 또한, VIF분석을 수행한 결과 1.05 ~ 1.86으로 2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단주자기효능감, 알코올회복과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1)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은 주로 잠재변인이 적절하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변인을 분석한다. 잠재변인인 단주자기효능감, 알코올회복, 회복탄력성, 자활의지를 구성하는 측정변인들(부정적 정서, 사회적 압력, 신체적 고통, 금단 및 갈망 경험, 음주문제 수용, 열망과 도전,

표 4. 측정모형의 요인 값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	p
단주 자기 효능감	부정적 정서	.90	.89	.04	25.02	***
	사회적 압력	.99	.96	.03	35.73	***
	신체적 고통	1.00	.97			
	금단 및 갈망 경험	1.01	.95	.03	33.85	***
알코올 회복	음주문제 수용	.66	.65	.06	11.13	***
	열망과 도전	.80	.81	.05	15.69	***
	새로운 삶	1.00	.91			
	삶 만족	.98	.84	.06	16.70	***
회복 탄력성	자기조절능력	.84	.74	.08	10.58	***
	대인관계능력	.77	.75	.07	10.70	***
	긍정성	1.00	.79			
자활의지	자활의지1	.62	.55	.07	8.91	***
	자활의지2	.65	.65	.06	11.12	***
	자활의지3	.86	.76	.06	13.78	***
	자활의지4	.83	.80	.06	15.07	***
	자활의지5	.95	.86	.06	17.30	***
	자활의지6	.86	.79	.06	14.87	***
	자활의지7	.97	.87	.05	17.89	***
	자활의지8	1.00	.87			
	자활의지9	.85	.80	.06	15.29	***
	자활의지10	.72	.64	.07	10.73	***
	자활의지11	.72	.60	.07	9.82	***

*** $p < .001$.

표 5. 측정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χ^2	df	p	TLI	CFI	SRMR	RMSEA
측정모형	464.345	203	.000	.924	.933	.048	.077

새로운 삶, 삶 만족,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자활의지(1 ~ 11)을 투입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4에서와 같이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이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각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 = 464.345$, $df = 203$, $CMIN/df = 2.287$, $TLI = .924$, $CFI = .933$, $RMSEA = .077$ 로 나타났다(표 5 참조). TLI, CFI값이 .9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RMSEA의 경우 .05 ~ .08사이의 값을 괜찮은 적합도로 보고 있어(강현철, 2013) 측정모

형은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연구모형(매개효과) 검증

단주자기효능감과 알코올회복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경로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인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화계수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는 $\chi^2 = 490.901$, $df = 204$, $CMIN/df = 2.406$, $TLI = .918$, $CFI = .928$, $RMSEA = .081$ 로 나타나 적합도가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χ^2	df	p	TLI	CFI	SRMR	RMSEA
연구모형	490.901	204	.000	.918	.928	.082	.081

표 7.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변수간 경로	직접효과	p	간접효과	p	총효과	p
회복탄력성 ← 단주자기효능감	.15	.023	-	-	.15	.023
회복탄력성 ← 알코올회복	.70	.001	-	-	.70	.001
자활의지 ← 단주자기효능감	.12	.038	.04	.021	.16	.007
자활의지 ← 알코올회복	.47	.003	.19	.011	.66	.002
자활의지 ← 회복탄력성	.28	.018	-	-	.28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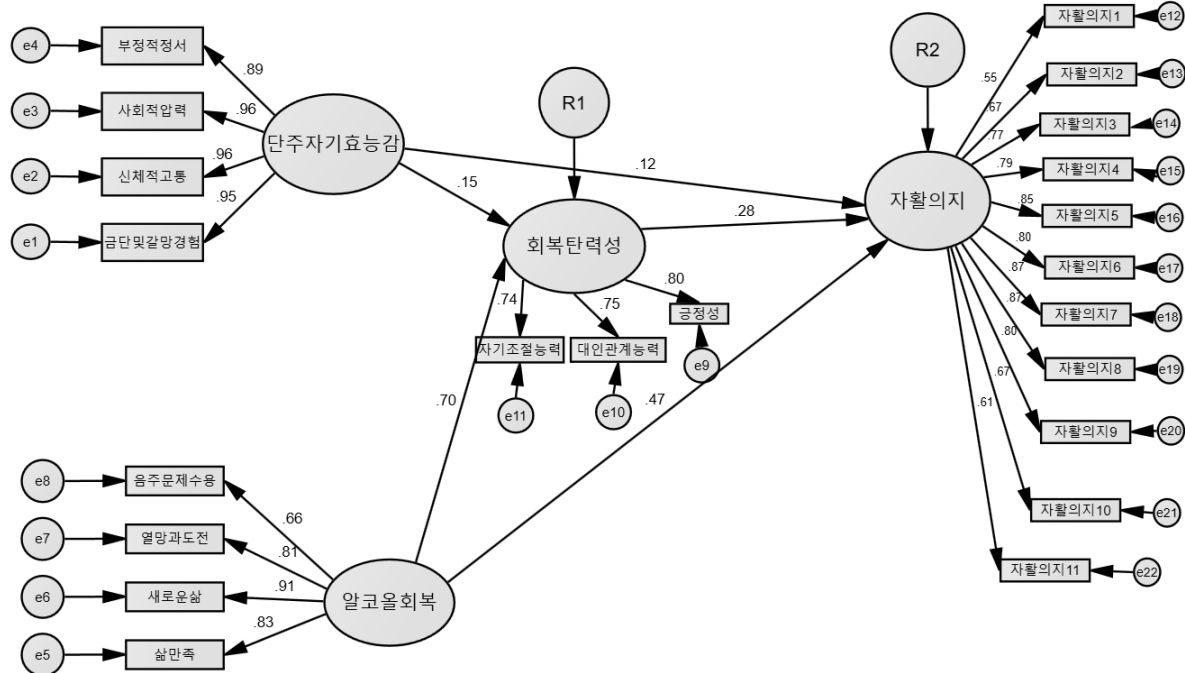


그림 2. 단주자기효능감, 알코올중독회복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

부트스트래핑 방법($B = 1000$, 95 CI,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간접 효과의 유의성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를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95% Bias-corrected 신뢰구간에서 관련 변인 모두 LLCI와 ULCI의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단주자기효능감과 알코올회복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알코올중독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단주자기효능감, 알코올회복, 회복탄력성, 자활의지 간의 구조적 관계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주자기효능감, 알코올회복, 회복탄력성, 자활의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주자기효능감, 알코올회복, 회복탄력성, 자활의지를 구성하는 측정변인들 간의 분석결과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을 확인한 결과, 단주자기효능감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자활의지에 이르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각 변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주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자활의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알코올회복도 회복탄력성과 자활의지에 이르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주자기효능감은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자활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단주자기효능감은 알코올중독자들에게 효과적인 심리적 자원이라고 언급한 선행연구(송은주 등, 2012; 최은정 등, 2012)와 맥을 같이 한다. 알코올중독자들에게 단주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자기 비난으로 연결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무력감으로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경험을 통한 숙달감 습득, 역할모델 등을 강조하고 있다(Heslin & Klehe, 2006). 회복탄력성은 적극적인 학습과 의도적인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Sood, Prasad, Schroeder, & Varkey, 2011). 임상 현장에서 알코올중독자들에게 어려운 작업을 세분화시켜 쉬운 단계로 나누어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서 점진적으로 경험을 숙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을 때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방법도 제안할 수 있다. 관찰 대상이 유사할 때 타자의 성공과 실패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학습할 기회를 높일 수 있지만, 효능감이 너무 높아도 과도한 위험을 촉발하거나 능력에 대한 과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Heslin & Klehe, 2006) 현실적인 관점에서 효능감을 키울 수 있는 임상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매개변수의 간접 효과를 확인한 결과, 단주자기효능감과 알코올회복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알코올회복과 단주자기효능감이 자활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단주자기효능감과 알코올회복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회복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영선, 2018), 가족탄력성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김정희, 2021)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알코올중독 회복자들의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중독자들이 여러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실패를 잠재적인 성장과 회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면 자활의지를 향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애과정에서 많은 수의 긍정적인 사건 경험은 재발을 낮추는 예측요인이 되었다(Bottlender & Sayka, 2005). 회복탄력성은 긴장도가 높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알코올중독자들에게 스트레스 관리 훈련을 통해 부정적 스트레스 감소 및 적응적인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연구(홍정남, 이영호, 2009)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능감이 높을

수록 자활의지를 높이고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알코올중독자의 자활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김영선, 2018; 장용언, 임중철, 2015)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알코올중독자 개인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자활의지를 높일 뿐 아니라 단주를 유지하는데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서 가능하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우재희, 2015).

재발이 잦은 알코올중독자들은 단주자기효능감이 낮기 때문에 단주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심리적 개입이 중요할 수 있다(다사랑중독연구소, 2007).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감사하기와 같은 긍정적 정서를 높이는 구체적인 전략이나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활동과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자원 제공, 신체적 운동 프로그램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이 높은 이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고 긍정적 믿음을 갖고 있으므로 A.A. 모임에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A. 모임은 중독자 자신이 알코올중독자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격이 재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지속해서 자신을 점검해 나가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모색하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설정을 통해 자존감을 고양하도록 돕는다. A.A. 모임에서 재발 경험이나 횡수보다는 단주한 성공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 중심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알코올중독자들의 자활의지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취업교육, 직업연계 등과 같은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앞서 강점 관점에서 자신의 내적 자원과 긍정적 힘을 갖게 해주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강점 관점에서 단주자기효능감, 알코올회복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자활의지에 이르는 경로 과정을 살펴보고 중독자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주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 자활의지와 같은 심리적 자원들을 활용하

여 알코올중독자의 회복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알코올중독의 재발을 낮추기 위해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위의 임상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판단에 따라 의도적 표본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표집 상의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적 특성이 있는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자의 단주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단주자기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자활의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준혁 (2016). 도박중독자의 회복과정과 실존체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https://doi.org/10.23185/skku.000000089003.11040.0010686>
- 강준혁, 강선경, 맹성준 (2023).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살생각 원인에 관한 연구: 절망의 내적 요인 탐색. 생명연구, 70, 97-118.
<https://doi.org/10.7924/solc.2023.70.97>
- 강향숙 (2015). 알코올중독으로부터 회복에 대한 회복개념 구성 연구: Q방법론 적용. 사회과학연구, 41(2), 57-78.
<https://doi.org/10.15820/khjss.2015.41.2.003>
- 강현철 (2013).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합도지수의 해석과 모형적합 전략에 대한 논의. 한국자료분석학, 15(2), 653-668.
- 권학선 (2006). 알코올중독자의 재발 추출 요인에 관한 연구-근거이론을 중심으로-.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연구, 3(1), 61-86.
- 김선민 (2006). 알코올리즘으로부터 회복중인 상담가 체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민, 오기철, 강향숙 (2013). 노숙을 경험한 알코올 의존자의 치료공동체를 통한 회복체험연구-노숙인 시설인 비전트레이닝센터의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회복 중인 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1), 5-31.
<https://doi.org/10.16999/kasws.2013.44.1.5>

- 김성재 (1996). 알코올리즘의 개발에 관한 이론적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 주수산나, 신혜림 (2022). 헬리콥터 부모역할과 게임 및 소셜 미디어 중독의 관계: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9(2), 35-55.
<https://doi.org/10.15284/kjhd.2022.29.2.35>
- 김승의 (2007).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의욕 및 취업·창업관련 활동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선 (2018). 12단계 통합 회복 프로그램이 남성 알코올중독자 회복과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석, 이재완, 한명미, 김묘정, 정한샘, 최현정, 이석호 (2015). 자활사업 참여자의 음주문제, 참여기간, 자활의지 간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7(1), 143-163.
<https://doi.org/10.20970/KASW.2015.67.1.006>
- 김정수, 한상익, 김광수 (1994). 주정중독의 재발에 대한 임상변인들의 영향. *신경정신의학*, 33(4), 917-924.
- 김정희 (2021). 자활사업 참여자의 가족탄력성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3), 1-15.
<https://doi.org/10.22626/jkfrma.2021.25.3.001>
- 김주환 (2011). 회복탄력성: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Resilience. 서울: 위즈덤 하우스.
- 김혜선, 박소영 (2018). 재활시설에 입소한 알코올중독자의 회복 경험: 회복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2(3), 169-192.
<https://doi.org/10.22867/kaqsw.2018.12.3.169>
- 다사랑중독연구소. (2007). 알코올의존환자와 가족을 위한 회복교실. 서울: 하나의학사.
- 백형의, 조수민, 김선희 (2021). 알코올중독자의 A.A.몰입과 회복과의 관계에서 단주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성별 및 연령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21(1), 698-709.
<https://doi.org/10.5392/JKCA.2021.21.01.698>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 2023년 중독 주요 지표 모음집. 세종: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_____. (2024). 2024 정신건강 사업 안내. 세종: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송승숙, 장승욱 (2013). 빈곤여성이자 자활의지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행정학보*, 47(4), 345-368.
- 송은주, 홍수영, 김희선 (2012). 단주 프로그램이 알코올중독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단주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4), 2053-2065.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105-131.
- 우재희 (2015). 알코올중독자의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3(3), 279-303.
- 유태균, 김경휘 (2008). 자활사업 참여자의 중도이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4(1), 283-306.
- 윤명숙 (1999). 알코올중독자의 회복과정(recovering process) 원조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8, 135-199.
- 이종례 (2021). 농촌 자활사업참여자의 음주 문제 개입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동기증진치료 모델의 적용.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희선 (2007). 여성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의지와 음주의 관계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용언, 임증철 (2015). 준·고령층 자활사업 참여자의 직무만족이 자활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기유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5(4), 1003-1017.
- 전수미 (2014). 회복패러다임에 근거한 알코올의존 회복척도 개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희 (2010). 자기초점적 주의성향이 알코올 중독자의 단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송식 (2013). 한국사회에서 알코올중독자의 재발예방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48), 307-348.
- 최은정, 양정남, 박순희 (2012). A.A. 멤버의 우울과 단주자기효능감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4), 230-258.
- 한은숙 (2019). 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은숙 (2006).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2), 45-67.
- 홍정남, 이영호 (2009). 가족탄력성이 알콜중독자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연구*, 6(2), 9-26.
- Bandura, A. (1978). Reflections on self-efficacy. *Advances i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4), 237-269.
[https://doi.org/10.1016/0146-6402\(78\)90012-7](https://doi.org/10.1016/0146-6402(78)90012-7)
- Bottlender, M., & Sayka, M. (2005). Outpatient alcoholism treatment: Predictors of outcome after 3 year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80(10), 83-89.
<https://doi.org/10.1016/j.drugalcdep.2005.03.011>
- Cassidy, S. (2015). Resilience building in students: The role of academic self-efficacy. *Frontiers in Psychology*, 6(1781), 1-14.
<https://doi.org/10.3389/fpsyg.2015.01781>
- Chen, X., Yu, B., Zhou, D., Zhou, W., Gong, J., Li, S, M., & Stanton, B. (2015). Men who have sex with men among rural-to-urban migrants and non-migrant rural and urban residents in China: A GIS/GPS-assisted random sample survey study. *PLoS ONE*, 10(8), 1-18.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34712>
- De Caroli, M. E., & Sagone, E. (2014). Generalized self-effi-

- cacy and well-being in adolescents with high vs. low scholastic self-efficacy.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41, 867-874.
<https://doi.org/10.1016/j.sbspro.2014.05.152>
- Diclement, C. C., Carbonari, J. P., Montgomery, R. P., & Hughes, S. O. (1994). The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2), 141-148.
<https://doi.org/10.15288/jsa.1994.55.141>
- Enoch, M. A. (2007).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alcoholism resilience vs. risk.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94(1), 193-201.
<https://doi.org/10.1196/annals.1376.019>
- Garnezy, N. (1993). Children at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https://doi.org/10.1080/00332747.1993.11024627>
- Hatzidimitriadou, E. (2002). Political ideology, helping mechanisms and empowerment of mental health self-help mutual aid group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oal Psychology*, 12(4), 271-285.
<https://doi.org/10.1002/casp.681>
- Haverfield, M., & Theiss, J. A. (2015). Parent's alcoholism severity and family topic avoidance about alcohol as predictors of perceived stigma among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Implications for emotional and psychological resilience. *Health Communication*, 31(5), 606-616.
<https://doi.org/10.1080/10410236.2014.981665>
- Heslin, P. A., & Klehe, U. C. (2006). Self-efficacy. In S. G. Rogelberg (Ed.), *Encyclopedia of industrial/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 pp. 705-708). Thousand Oaks: Sage.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https://doi.org/10.1177/0013164403251332>
- Hurtes, K. P., & Allen, L. R. (2001). Measuring resiliency in youth: The resiliency attitudes and skills profile.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35(4), 333-347.
- Lau, R., Willetts, G., Hood, K., & Cross, W. (2015). Development of self-efficacy of newly graduated registered nurses in an aged care program. *Australasian Journal on Ageing*, 34(4), 224-228.
<https://doi.org/10.1111/ajag.12156>
- Mallow, A. J. (1998). Self-disclosure: Reconciling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and alcoholics anonymous philosophy.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15(6), 493-498.
[https://doi.org/10.1016/S0740-5472\(97\)00291-2](https://doi.org/10.1016/S0740-5472(97)00291-2)
- Martin, A., & Marsh, H. (2006). Academic resilience and its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correlates: A construct validity approach. *Psychology in the Schools*, 43(3), 267-281.
<https://doi.org/10.1002/pits.20149>
- Palmer, N. (1997). Resilience in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 nonpathological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Health & Social Work*, 22(3), 201-220.
<https://doi.org/10.1093/hsw/22.3.201>
- Prince-Embury, S., & Saklofske, D. H. (2014). *Resilience interventions for Youth in diverse populations*. New York: Springer.
- Rollnick, S., & Heather, N. (1982). The application of Bandura's self-efficacy theory to abstinence-oriented alcoholism treatment. *Addictive Behaviors*, 7(3), 243-250.
[https://doi.org/10.1016/0306-4603\(82\)90051-X](https://doi.org/10.1016/0306-4603(82)90051-X)
- Sood, A., Prasad, K., Schroeder, D., & Varkey, P. (2011). Stress management and resilience training among department of medicine faculty: A pilot randomized clinical trial.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6, 858-861.
<https://doi.org/10.1007/s11606-011-1640-x>